

2002學年

碩士學位請求論文

指導教授 이정현

改革主義 立場에서의 열린 禮拜 批判

-The Criticism on Open Worship in the Reformation's view-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朴炳燁

改革主義 立場에서의 열린 禮拜 批判

-The Criticism on Open Worship in the Reformation's view-

指導 이 정 현 教授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11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牧會學科

朴炳燁

박병엽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準함

審査委員長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審査委員_____ 印

2002년 11월

安養大學校 神學大學院

목 차

I. 서론	4
A. 문제제기	4
B. 연구목적 및 방법	5
II. 개혁주의 예배의 성경적 및 역사적 고찰	7
A. 예배의 성경적 고찰	7
1. 예배의 어원적 고찰.....	7
2. 족장 시대의 예배	8
3. 모세시대의 예배	9
4. 왕국 시대의 예배	10
5. 포로시대 이후의 예배	11
6. 예수님 시대의 예배	12
B. 예배의 역사적 고찰	13
1. 쾰빙글리의 예배	13
2. 부처의 예배	14
3. 칼빈의 예배	16
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17
C. 개혁주의 예배	25
1.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25
2. 개혁주의 예배란 무엇인가?	28
3. 예배는 시대성을 가지는가?	29
III.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열린 예배 비판	32
A. 21세기 상황 이해	32
1. 변화에 대한 요구	32

2. 한국교회가 겪는 변화	33
B. 예배 갱신으로의 열린 예배	36
1. 열린 예배의 등장배경	36
1) 열린 예배의 명칭의 유래	36
2) 현대적 감각에 맞춘 예배	36
3) 열린 예배의 성경적 배경	37
4) 열린 예배의 특징	38
5) 한국적 상황에서의 열린 예배	39
C. 열린 예배의 문제점	40
1. 인간 중심의 예배	40
2. 예배 형식의 세속화	41
3. 외형적 구조의 변경	42
4. 프로그램과 행사	43
5. 열린 예배의 형태들	43
IV. 예배갱신으로써의 개혁주의 예배	46
A. 성경적 예배의 현대적 적용.....	46
1. 초대	46
2. 죄 고백	47
3. 성경 읽기와 설교	47
4. 결단	48
5. 축제	49
B. 예배갱신으로써의 설교의 회복.....	51
V. 결론 및 제언	52
A. 요약	52
B. 제언	53

참고문헌(Bibliography)

I. 서론

A. 문제제기

오늘날을 간단히 표현하면 혼돈의 시대이고 그 변화의 속도는 엄청날 뿐 아니라 미래는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시작된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는 과학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종교 등 삶의 전 영역에 확산되었다. 그럼, 교회는 어떠한가? 교회도 이러한 변화의 끊임없는 요구에 무관하지 않은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는 힘이 부족할 뿐 아니라, 한국교회는 세상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변화에 대한 요구는 예배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특별히 미국의 윌로우크릭이나 새들백, 빈야드 운동에서와 같은 예배 갱신의 새로운 모델들이 등장하여 일부에서는 변화된 세상에서의 가장 적합한 예배모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붙들어 두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성향에 맞는 예배의 형태로 많은 교회들이 서둘러 받아들이고 있다. 젊은층의 신앙의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열린 예배의 형태가 찬반 양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교회들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적인 예배의 형태도 차츰 식상해지면서 계속 새로운 느낌과 감동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것은 예배의 본질에서 빗겨나 있는 것으로 열린 예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열린 예배의 긍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겠으나 열린 예배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적지 않다. 그 중 하나는 종교개혁자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을 약화시킨 것에 있다. 일정한 기획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시간은 다른 예배 요소들과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시간이 축소되거나 성경을 충분히 설교하지 못하는 문제를 초래하였다. 또한 예배 요소에 있어서도 역사적 기독교 신앙이

고수해 온 예배요소들, 예를 들면 시편이나 성경을 교독하는 것, 신앙고백, 중보기도, 성례의 집행 등과 같은 것은 열린 예배의 요소와 조화되지 못한 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는데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열린 예배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이기 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인간에게 중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이에 일부 교회에서는 열린 예배가 예배갱신의 모델과도 같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입장에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혁주의 입장의 예배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B. 연구목적 및 방법

본 논문은 열린 예배에 대하여 개혁주의 입장에서 비판하기 위해 먼저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배의 모습을 살피고 다음으로 국내외에 발표된 예배학에 관한 단행본과 논문 및 정기간행물등을 통하여 오늘날 새로운 예배의 형태로 국내외에 등장하고 있는 열린 예배에 대해 개혁주의 입장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한국교회의 예배의 갱신이 가져야 할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별히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드러지는 예배의 각 요소들이 갖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러나 열린 예배의 일부 긍정적인 영향은 조심스럽게 수용하고자 한다.

예배에 대한 바른 성경적, 신학적 관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른 예배신학의 정립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개하고자 한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에서 논하고자 하는 바와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II 장에서는 예배에 대한 성경적 고찰을 통해 예배의 어원적 의미와 성경에 나타나는 예배의 요소의 본질과 의미를 살피고 개혁주의 예배에 대

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제 III장에서는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열린 예배를 진단하고 문제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제 IV장에서는 올바른 예배갱신으로서의 개혁주의적 예배요소를 살피고 특별히 예배에서의 설교의 중요성을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 제 V장에서는 본 논문의 요약과 제언을 서술할 것이다.

II. 개혁주의 예배의 성경적 및 역사적 고찰

A. 예배의 성경적 고찰

1. '예배'의 어원적 고찰

신. 구약에 사용된 예배에 대한 어원적인 근거를 중심으로 예배를 정의할 수 있다.¹⁾ 예배의 의미를 나타내는 구약의 단어 “샤하”는 ‘엎드려 절하다’, ‘구부리다’, ‘굴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아보다”는 ‘봉사’, ‘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프로스퀴네오”는 ‘누구의 손에 입을 맞추는 것’, 또는 ‘존경의 표시로서 다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레이투르기아”는 ‘섬김’이나 ‘봉사’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영어의 “worship”이라는 단어에는 ‘존경과 영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합당한 가치를 드리는 것’, ‘존경의 가치가 있는 분에게 거기에 걸맞는 존경과 애정을 표하는 진실한 행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을 통해 예배에 대한 가르침과 예배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로부터 얻어지는 결론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활동이 예배라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마치 예배라는 행위가 인간의 활동인양 생각하도록 만드는 경향이다. 그러나 예배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행위이기에 앞서 하나님의 행위의 문제라는 것이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백성들이 나아와 피조물의 전인격을 드러 그를 만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

1) 이정현, 「개혁주의예배학」 (서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출판부, 2001), pp. 19-23.

왔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그러므로 예배의 시작은 피조물인 우리에게서부터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배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대상에 대한 중요한 점이다.

각 종교는 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낯선 독특한 형태의 예배 관습을 가지고 있다. 각 민족과 종교마다의 독특한 예배 관습에 대해 바티칸 제2공의회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만물의 이치를 주관하는 감추어진 세력이 있다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해 왔었다. 때로 그러한 것에 대한 인정은 지고의 신(Supreme Divinity)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 그러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인정은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 깊은 종교심을 심어준다.

칼빈(Calvin)도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신 지식”(A sense of divinity)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인간이 드리는 예배를 다양하게 만드는 “종교의 씨”(Seed of religion)가 된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이러한 다양성은 실제로 변화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는, 즉 하나님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을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우둔함이 치료될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드려지는 예배만이 참 예배이다. 칼빈은 그 외의 다른 모든 예배는 거짓된 예배라고 규정 지었다.²⁾

인간들이 드리는 예배의 다양한 모습들은 문화적이고 지적인 차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 영혼의 종교적 방향을 반영할 뿐이다.

2) James A. De Jong, 「개혁주의 예배」, 황규일 역(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p. 10.

2. 족장 시대의 예배

구약에서의 최초의 예배 모습은 족장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개인제단과 가정제단이었으며, 희생의 제물이 중심이었다. 이 때 족장이 제사장으로서 예배 즉 제사를 주관하고 집행하였다. 성경 최초의 예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창 4:3-5)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다. 결과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나 어떤 예배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히 11:3-4)라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자체보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³⁾

다음에 언급되는 구약의 예배는 노아의 제사(창 8:20-21)로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의 구속의 의미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로써 시행된 예배라 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족장의 대표인 아브라함의 제사(창 12:1-8, 22:1-17)를 들 수 있다. 전자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가나안으로 인도인 언약의 성취 가운데서 이루어진 감사의 예배로 이해되며,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신앙적 시험이 전제되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이삭을 제물로 제사하던 그 장소가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었으며 유대종교의 예전이 정착된 자리가 된다. 아브라함의 경우, 전자는 감사의 예배이고 후자는 믿음의 예배였다.

족장시대 제사의 공통점은 재물을 불태워 드리는 번제 형식으로 제단에 드려졌고 하나님의 인도, 보호 그리고 약속 성취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많았으며 제사행위로 하나님과의 만남, 교통이 이루어 졌다는 것이다.⁴⁾

3. 모세시대의 예배

출애굽기 24:1-8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공적인 만남을 묘사해 주는 부분이다. 웨버(Rovert E. Webber)는 이 부분을 하나님과 그의 백성간의 만남

3) 이정현, op. cit., pp. 41-43.

4) Ibid., 43-44.

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골격으로 보고 거기서 예배의 다섯 가지 구조적 요소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이 만남을 소집한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그들을 자신과 만나도록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회”를 갖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자신과 만나도록 부르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은 각기 역할을 분담하여 전원이 참여했다는 점이다. 즉 모세가 모든 책임을 졌으나 아론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이스라엘 청년들과 일반 백성들까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각기 한 가지씩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는 참여가 예배의 기본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예배가 온전할 수 없음을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넷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각자가 굳게 약속했다는 점이다. 기독교의 전통적 예배는 예배를 통하여 각자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갱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은 인을 치는 비준의 극적인 상징으로 그 결정이 이룬다는 점이다. 구약에서 인을 치실 때는 희생의 피를 사용하였고, 이 희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실 영원한 희생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희생 이후에는 성만찬이 교회와 하나님 사이의 맺은 언약의 관계를 보증하는 인이 되었다.⁵⁾ 이러한 예배의 골격은 기독교 예배의 근원이 되고 전수되어야 할 신앙교육의 중심적 내용이 되어야 한다.

4. 왕국 시대의 예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약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에는 13명의

5) Robert E. Webber, 「예배학」, 김지찬 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p. 14.

사사에 의해 간간이 예배가 회복되기는 하나 역시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통일왕국 시대에는 예배의 많은 변화가 온다. 중요하고 특이할 만한 사건으로는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완성되어 성막 시대의 예배가 청산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의 예배의 몇 가지 중요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십계명이 담긴 법궤를 성전에 모신 일

둘째, 기구들로 성전을 화려하게 장식한 점

셋째, 찬송과 함께 수금, 나팔 같은 악기를 사용한 점

넷째, 예배의 참여자들이 십일조를 비롯하여 각종 예물을 드린 것

그리고 그들의 예배 행위는 음악, 축송, 춤, 기도, 행렬, 강화, 선조들에 대한 회상, 고백 등으로 다양화 되었으며, 함께 거룩한 식사를 나누는 순서를 가졌다.

이러한 성전예배는 솔로몬 말기부터 그의 타락과 함께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예배의 본래적 목적을 상실하는 현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후기의 많은 예언자들은 아무리 많은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미6:8).

5. 포로시대 이후의 예배

성전 중심의 예배는 바벨론 포로로 인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등장한 것이 회당예배이다. 회당예배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도 거의 바뀌지 않고 이어졌는데 회당예배의 강조점은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말씀 전에 모두가 일어서서 축원 또는 기도를 했고 말씀이 봉독 되는 시간에도 역시 일어서서 지극한 경외심을 표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집전자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예배자들의 참여 속에 경청되어 이해를 가져오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되었다. 그 뿐만 아니라 아침, 정오,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가 성행하게 되었고, 가정도 예배 장소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예배

의 면모는 기독교 예배의 요람적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의 개혁신교회가 갖는 말씀 중심의 예배에 전승 근원이 되고 있다. 그리고 회당예배는 신약 시대에 와서 매우 활발히 발전, 전개되었으며 교회의 확장 속에서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는 절대적 영향을 남겼다.⁶⁾

6. 예수님 시대의 예배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시대에는 성전과 회당에서 동시에 시행되었다. 예수님께서 친히 동물제사를 드렸다거나 제사제도를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서 예배를 드리셨고 가르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장소보다 예배하는 자의 심령과 태도를 더 중요시 하셨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잘 나타난다.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하여 예배의 단편적인 자료들을 제공하신다. 형식적인 헌금보다 정성어린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표시로써 헌금할 것(마 5:23-24, 막12:41-44)과 십일조(마23:23)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2:19) 하는 말씀을 통해 구약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장소이었듯이 진정한 성전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만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밝히셨다.

예배 안에서 공중기도와 관련하여서는 마태복음 18:19-20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두 세 사람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어느 장소 어느 시에 모이더라도 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일 때면 언제나 약속되고 있다.

주님의 세례와 성찬제정이야말로 지금까지의 예배에서 새로운 예배로의 전환이었다고 본다. 예수님은 세례에 순종했으며(막1:9-10), 자신이 비록 세례를 베푸는 적은 없지만, 그의 제자들이 세례 주는 것을 승인했으며(요 3:22-26, 4:1-2), 세례를 해석했으며(눅12:50, 막10:38-39), ‘아버지와 아들과

6) 이정현, op. cit., pp. 55-56.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세례를 명령했다(28:19-20).

예수님은 떡을 자심의 몸으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해석함으로 그가 그것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새로운 구원과 해방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통하여 새로운 언약관계를 형성한 것이다. 이제 떡과 잔은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바쳐진 살과 피를 나누는 방편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눅22:19)고 하였고 이런 교훈은 고린도전서 11:24-25에서 바울에 의해 되풀이된다. 반복하라는 주의 명령이 있으므로 오늘날의 예배에서 이 요소를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헌물, 연보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는 예배 요소에 관한 그리스도의 지침은 그 요소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면을 소홀히 해서는 안됨을 말씀하셨다.⁷⁾

B. 예배의 역사적 고찰

종교개혁자들이 중세교회의 폐단을 개혁함에 있어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로 착수한 것이 바로 예배의 개혁이었다. 그들은 신앙고백서를 작성하였고, 예배서를 만들어 그들이 신앙하는 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⁸⁾

1. 쾰빙글리의 예배

쾰빙글리는 다른 개혁자보다 예배의식을 간소화하였다. 자신이 음악가였음에도 예배에서의 음악사용을 폐지하였다. 루터와 칼빈과는 다르게 성만찬을 은혜의 방편으로 보지 않았으므로 1년에 4회 성만찬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제네바에 영향을 주어 매주 성만찬을 갖고자 했던 칼빈의 견해도 불구하고 제네바 시의회와 당회는 쾰빙글리의 관례를 따랐다. 이것이 개혁교회의 전통이 되고 말았다. 성경봉독과 설교는 자국어로 진행하도록 하였다.

7) 이정현, op. cit., pp. 61-65.

8) Ibid., pp. 87-97. 종교개혁자들 중 개혁주의 입장에서 있는 쾰빙글리와 부처, 칼빈의 예배서이다.

쓰빙글리의 예배의 특징으로 첫째는, 미사를 예배로 간주하지 않았고, 둘째 성만찬을 상징으로 보고 년 4회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며, 셋째는 예배에서 모든 상징을 제거했으며 음악도 철폐했다. 마지막으로 설교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말씀의 예전>

봉헌:성물준비

기원

기도문

서신서 낭독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 안티포날리 (antiphonally)라 부름

복음서 낭독

사도신경

<다락방 예전>

권면

성찬상 구별

주기도

겸손히 나아감을 위한 기도

성찬제정의 말씀 : 성체분할

집례자 참여

배찬. 회중의 참여

성찬 후 시편 교창

성찬 후 기도문

폐회

2. 부처의 예배

부처는 루터와 쓰빙글리의 중간지점에 서게 됨으로 개혁신교회 예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부처는 예배인도시 자국어(를) 사용하였고 찬송과 시

편을 독일어로 부르게 하였다. 예배의 명칭도 서서히 독일어로 바꾸었다.

또한 니케아신경 대신 사도신경을 사용하였고 설교는 예배에서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서신서나 복음서 중 선택하여 읽기도 했다. 그리고 성가대의 위치도 집례자가 회중을 바라보면서 집례 할 수 있도록 했다.

<말씀의 예전>

죄의 고백

사죄의 말씀

사죄의 선언

시편, 찬송 또는 키리에스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조명을 위한 기도문

시편낭송

성경봉독 : 설교본문-복음서

설교

<다락방예전>

구제헌금

떡과 잔의 준비(사도신경을 노래한다)

중보기도와 봉헌기도

주기도

권면

성찬 제정의 말씀

분할

배찬

성찬을 받는 동안 시편이나 찬송을 부른다

성찬 후 기도

이론의 축도

폐회

부처의 예배의식 중 특이한 사항은 서두에 ‘사죄의 기도’와 ‘구제헌금’ 순서가 있다는 것과 2부에서 ‘중보기도’가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특징적

인 요소들은 칼빈에게까지 이어지나 그 이후에 많이 사라졌으므로 현대교회가 회복해야 할 요소이다.

3. 칼빈의 예배

칼빈은 1540년 초에 첫 예배서를 발간하는 것을 시작으로 몇 차례 예배서 발간을 통해 예배의 갱신을 노력하였다.

칼빈은 예배가 성경적이어야 하고 신학적으로 충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루터는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것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칼빈은 명령받지 않은 것은 자유로이 선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교회안에서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허락지 않았다. 루터가 예배 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강조했다면 칼빈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순종을 강조하였다.

칼빈은 회중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와 예배의 인도와 찬송, 기도 모두 자국어로 실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예배음악에 있어서는 악기사용을 불허했다. 민요나 세속음악을 교회음악에 삽입하는 것도 금했다.

칼빈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앙인격이 성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칼빈에게 있어 예배는 단순해야 한다. 성찬이나 세례에서 필요없이 화려한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교회예배당의 건축도 화려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의식의 단순성을 이유로 회중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면 의식을 존중하여 교회를 지키는 것이 낫다고 했다.

예배시간에는 사람을 향해서나 위해서 일체 칭송을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박수를 치지 말라고 하였고, 설교자는 가능한 한 예화를 들지 말 것이며, 들 경우에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사용하며, 교인들은 설교시간에 즐지 말 것이라고 교훈 한다.

종교개혁자들의 예배의식은 그 기원을 중세교회에 두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의 예배에서 ‘의식적인 것과 예전적인 부부를 제거하고’ 예배의 다른 요소를 삽입시켰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찬송과 악기사용

에서 루터는 오르간 사용과 칸토를 허용하고 심지어 민요도 예배음악에 사용했지만, 쾰링과 칼빈은 오르간 사용을 불허했다. 예배언어는 동일하게 자국어로 드리도록 했으며 부처와 칼빈은 예배의 여러 요소중 말씀을 강조했다.

<말씀의 예전> - 1542년 제네바 예배서

성구 :시편 124편 8절

죄의 고백

시편(곡을 붙여 노래함)

조명을 위한 기도

설교본문

설교

<다락방 예전>

구제헌금

중보기도

주기도(길게 풀어서)

성물준비(사도신경을 노래하는 동안)

성찬제정의 말씀

권면의 말씀

성찬기도

떡을 뱉

배찬(시편의 노래 또는 성경봉독)

성찬 후 기도

아론의 축도

4.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1)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예배관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며, 그 두가지를

바탕으로 구원의 지식을 전달하여 준다. 우리의 예배와 경건은 철저하게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에만이 참된 예배가 드러진다. 모든 기준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하며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곧 오류 속으로 빠지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신속하게 달린다 하더라도, 그 진리에서 탈선했기 때문에 목적지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 밖에서 전속력을 다해서 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절며 이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더 낫다.⁹⁾

이것은 모든 경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와야 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로마교회는 이러한 교리를 버리고 성도의 무지함과 오직 의식의 화려함으로 감동을 주려는 노력을 극대화하였다.¹⁰⁾ 그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보다는 공동 기도책의 가치를 더 높이 하였고, 수 많은 형상들과 그림들, 그리고 화려한 가운과 의식들로 성도들의 감동은 부추겼으나, 그들에게 구원의 지식은 전무하였다고 한다.¹¹⁾ 칼빈은 형상을 통하여 구원의 지식을 박탈하는 로마교회를 비판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여기서 말씀의 전파와 성례전을 통하여 한 공통된 교리가 모든 사람에게 제시되기를 명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우상을 생각하여 그 눈을 사방으로 두리번거리는 자들은 이 교리에 대해서 마음의 주의를 성실하게 기울이지 않는다.¹²⁾

9) 존 칼빈, Inst, I, 6, 3.

10) 카톨릭은 무식한 자들을 교육한다는 미명하에 교회 안에 많은 장식과 가운, 그림을 가지고 들어왔다. 거기에 장엄한 음악이 동반되었을 때, 예배당을 찾는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고 남음이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지금에 있는 찬양 집회라던가, 은사 집회 등은 중세 카톨릭에서 행하던 기적 집회에 거의 유사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예배 형태는 대개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타나는데, 건전하고, 바람직한 말씀의 강독이나 가르침의 시간의 실종 내지는 축소와 예배당을 찾은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주기 위해 표현된 말씀을 제외한 많은 시청각 도구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종교개혁자들에 의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사는 것으로 정죄되었고, 결국 청산된다. 중세 카톨릭의 기적 집회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B. B. Warfield 의 「기독교 기적론」, 이길상 역(서울: 나침반사, 1989), pp. 165-171.을 참조하라.

11) 존 칼빈, 「기독교강요초판」, 양낙홍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98), p. 45.

이러한 교리에 대한 무지와 감성에 대한 호소는 로마 교회의 특징으로 계속되었다. 말씀이 필요 없다 혹은 제일 좋게 표현해서, 말씀은 공동 기도를 읽는 것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밀어내는 경우가 생겼으니 많은 무식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 최근에 와서는 대단히 힘을 얻어서 전의 예식을 천거한다는 구실 아래 새로운 것들을 매일 교회에 억지로 부과시키고 있다.¹³⁾

장로교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조와 예배 모범은 우리에게 중요한 표준이 된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예배의 요소에 대해 알려주기 때문이다. 성경이 완전한 예배 모범 형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그 예배의 요소들을 보여 주고 있으며, 웨스트민스터 회의에 참여했던 총대들은 합당한 성경 해석에 의하여 예배의 요소와 순서를 밝히고 있다.

이것을 할 때(예배모범을 제정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한 것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을 고수하고 다른 일은 신자의 지혜의 법칙을 따라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준한 것이다.¹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8문답과¹⁵⁾ 예배모범은 예배의 요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 예배모범은 그 당시 범람하던 많은 부패된 예배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심사숙고한 후 작성된 것이다.

이정현 교수는 한국장로교회의 신학적 신앙적 뿌리인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결정된 ‘예배모범’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¹⁶⁾ 그동안 교회는

12) 존 칼빈, Inst, I, 11, 7.

1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中 「예배모범」, 김혜성 외 공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8), p. 500.

14) Ibid, p. 501.

15) 제 108문의 제2계명에 요구되는 의무들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는 일, 성례를 집행하고 참여하는 일, 교회 정치와 권징, 목사 직분과 생계비 지급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16) 이정현, op. cit., p. 121 ‘한국교회의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무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무관심하여 그 실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장로교회의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영향하에 구성, 발전되었기 때문에 그것의 배경, 구조 그리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다.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뿌리를 찾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른 예배갱신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 가운데 형성된 개혁교회의 전통, 전통적 예배의 형

예배모범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소홀히 하여 왔으나 예배에 대한 실천적이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예배모범을 통한 해답을 찾고 있다.

2) 예배모범의 내용

테일러(Evan Tyler)에 의해 1644년 영국에서 출판된 첫 번째 영문판은, 공동기도서를 폐지한다는 법령과 공동기도서를 폐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서문에서 밝히고 이어서 13개 항목으로 예배의 내용을 설명했으며 마지막은 공예배의 날과 장소에 관한 부록을 달고 있다.¹⁷⁾

(1) 법령

“공동기도서는 잉글랜드, 웨일즈령의 왕국에서 이후부터 교회나 예배당 또는 공예배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예비된 모범서는 진실한 의도와 법령의 의미에 따라 이 시간 후로 사용되고 준수되어야 한다.

(2) 서문

복된 종교개혁의 초기에 우리의 현명하고 경건한 선조들은 많은 것의 시정을 위해 한 규칙을 만드는 것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헛되고 결점 투성이며 미신적이고 우상숭배적인 것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경건하며 박식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기술된 공동기도서를 기뻐하였는데 이는 미사와 라틴어 예배를 제외한 모든 공 예배를 우리 자신의 언어로 드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전엔 책이 봉인된 대로 그들에게 읽었던 성경을 읽는 것을 들음으로 유익을 받았다.

고위 성직자들과 저희 부류는 그 예법을 끌어올려서 우리에게는 예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 이 예배 책 외에 다른 것이 없는 것처럼 가치를 올리려고 애를 쓰며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데(심지어

성과정을 이해하고 그 전통의 흐름 위에서 한국 장로교회의 상황에 맞는 예배모형을 추구해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17세기에 형성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17) 이정현, op. cit., pp. 129-143. (이정현 교수가 사용한 예배모범의 텍스트는 1901년 토마스 레이쉬만(Thomas Leishman)이 현대영어로 출판한 것이다.)

최근 어떤 곳에서는), 말씀이 필요 없다 혹은 제일 좋게 표현해서, 말씀은 공동기도 책을 읽는 것보다 열등한 것이라고 밀어내는 경우가 생겼으니 많은 무식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으로 만든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경륜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현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종교 개혁을 더욱 발전시켜 우리의 양심을 만족케 하고 다른 개혁교회의 기대에 응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경건한 자의 소원을 만족케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엄숙한 연합과 계약”에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예배에 통일성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우리의 증거를 보이기를 원한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후에 많이 의논하고 혈육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가결하였으니 이전 예배 의식을 그 여러 가지 의례와 이전에 하나님의 예배에 사용하던 예식들과 함께 버리고 다음 모범을 보통 때나 특별한 때에 공중 예배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것을 할 때, 우리가 특별히 주의한 것은 모든 규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들은 고수하고 다른 일은 신자의 지혜의 법칙에 따라 진술하려고 노력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에 준한 것이다.

(3) 공중예배를 위한 회중의 모임과 그 태도

회중이 공중예배를 위하여 모일 때에 백성들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 나와서 함께 참여하여야 하며, 회중이 다 모이면 목사는 엄숙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자고 초대할 후에 기도를 시작한다.

공중예배가 시작되면 회중은 전적으로 주의를 기울여서 목사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행위, 즉 그 때 읽거나 암송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읽는 행위, 사사로이 소근대는 것, 이야기하는 것, 인사하는 것, 멍하니 바라보거나 잠자거나 그런 보기 흉한 행동을 하여 자기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남도 못하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4) 성경봉독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말씀을 읽는 것은 공중예배의 일부분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훈과 성화의 방편이 된다. ... 성경을 공중 앞에서 읽어주는 것 외에

읽을 줄 아는 사람마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라고 권면해야 하고, 또한 성경을 소유하라고 권해야 한다.

(5) 설교 전의 공중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읽은 후(그리고 시편송 후)설교를 할 목사는 자기의 마음과 듣는 이의 마음이 지은 죄를 바로 깨달아 저희가 다 함께 주님 앞에서 죄를 참회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간구하되,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기도한다.

첫째, 원죄를 인하여 한다.

둘째, 실제로 짓는 죄를 인하여 한다. 우리가 지은 죄, 관리들이 지은 죄, 목사의 죄, 전 국민의 죄, 또한 우리 마음의 눈먼 것과 마음이 굳은 것, 불신과 뉘우치지 않음, 육신의 안일과 미지근한 것과 매마른 것 등

셋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야 마땅한 우리의 죄인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나오게 하심에 대하여 한다.

넷째, 주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를 인치사 용서와 화해, 위로를 허락하시고, 죄인들이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이 되도록 기도한다.

다섯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것이니 주님의 재림이 속히 이룰 것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교회를 구하여 주시고 개혁 교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기도한다.

여섯째, 왕을 비롯한 모든 권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기근, 전염병과 전쟁을 치워달라고 기도한다.

일곱째, 하나님과의 교통함과 주일을 복된 날로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성령을 부어주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탁월할 정도에 이르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여덟째, 주의 종에게 지혜와 믿음과 열심과 말씀의 충만함을 주시고, 듣는 자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하사,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한다.

(6) 말씀 선포에 대하여

말씀 선포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 사역에 속하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탁월한 부분이므로, 설교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과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원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 이 모든 것은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얻게 되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 더욱 확실한 조명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구 해야 하며, 설교자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뒤에 회중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보통 설교 주제는 신앙의 원칙이나 어떤 항목을 설명하는 성경 본문이어야 하고, 아니면 그 때 처한 특별한 경우에 맞는 것이거나, 혹은 적당한 시편이나 성경을 몇 장씩 계속해 설교할 수도 있다. ...

(7) 설교 후 기도에 대하여

설교가 끝나면 설교자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그리고 선포된 말씀이 회중들의 마음에 심기어져 열매 맺기를 위하여 간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깨어 기다리게 하심을 위하여 기도한 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린다. ...

(8) 성례의 집행에 대하여

세례

세례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은 목사가 지체치 말고 공 예배 시 회중 앞에서 행해야 한다. 유아 세례의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데리고 나올 것이며, 그는 세례 받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진지하게 고백하여야 한다. 세례 전에 목사는 제정의 말씀을 주고 이 성례의 성격과 용도와 목적에 관하여 예배모범에 기록된 대로 설명한다. ... 그리고 수세자의 이름을 부르고 아이의 머리에 물을 뿌리거나 부으면서 “내가 000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말한다. ...

성만찬

성만찬은 자주 거행하는 것이 좋으나 그 횟수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편리한대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거행시기는 주일 오전예배 설교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고, 성찬식 거행 일주일 전에 공적으로 미리 알림으로 참여자들

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성찬식을 시작할 때 목사는 설교와 기도를 하고 예배모범에 따라 권고를 하는데, 이 성례를 통하여 받게되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위로에 대해 감사드리고 합당치 않게 성찬에 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설명한다. 또한 회중들이 먼저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겸손한 태도로 주의 만찬에 참여 할 것을 권고한다. ...

(9) 거룩한 주님의 날에 대하여

주님의 날은 미리 기억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루종일 주의 날로 거룩히 지키되, 모든 불필요한 노동을 그치고 모든 오락과 유흥을 금할 뿐 아니라, 세상 말과 세상 생각까지 금하여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켜야 한다. ... 예배드리기 전, 후의 빈시간은 설교를 읽거나 묵상하고, 기도와 찬송, 병자심방,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 사용한다.

이외에 예배모범에는 (10)결혼 예식에 대하여, (11)병자 심방에 대하여, (12)죽은 사람의 장례에 대하여, (13)공적 금식에 대하여, (14)공적 감사일에 대하여, (15)시편 찬송에 대하여, (16)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대요리 문답 108문답은 예배의 요소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다.¹⁸⁾ 기도(빌4:6; 엡5:20), 성경 읽기(신17:18,19; 행15:21; 약 1:21-22), 설교(딤후4:2; 행10:33; 행20:7), 시편 찬송(엡5:19; 골3:16), 연보(고전16:2), 권면, 성례 등이다. 이 예배 모범은 그 당시 범람하던 많은 부패된 예배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명하시는가를 심사숙고한 후 작성된 것이다. 이 예배 모범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진다. 첫째는 그 요소들이 철저하게 성경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성경의 근거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예배의

18) 나용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p. 292

제108문 제2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들이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의식들을 순수하고 순전하게 받아서 준행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는 일; 성례를 집행하고 참여하는 일; 교회 정치와 권징; 목사 직분과 생계비 지급;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또한 거짓된 예배를 물리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일; 그리고 각자의 위치와 소명에 따라서 거짓 예배와 모든 우상숭배의 기념물들을 제거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요소에 넣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성경에서 어떤 요소를 끌어오지는 않았다. 구약의 의식법에 종속되는 것을 함부로 신약에서 사용할 수는 없다. 이런 것을 볼 때 예배는 어떠한 감정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것을 벗어나서 감정을 주로 삼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식은 사라지고, 인간의 환호성만이 남게 된다. 둘째는 철저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현대의 예배가 예배하는 자에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다.

이정현 교수는 예배모범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표현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 성경 중심,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 설교의 강조, 자유기도(찬양, 감사, 고백, 중보, 간구의 내용), 성찬의 분명한 의미 제시, 주일성수 강조 등을 꼽았다. 반면에 부정적인 면으로 예배예전의 약화, 성찬의 말씀에 대한 상대적 약화, 예배음악에서의 악기사용 금지, 중요한 상징까지도 사용을 금하는 것, 평신도의 예배참여 약화, 찬송의 시편송만으로의 제한을 들었다.

C. 개혁주의 예배

1.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이며,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위한 특별한 신앙고백의 장이다. 개혁주의 예배를 살피기 앞서 개혁주의가 무엇인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개혁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필 때 레이스는 종교개혁의 정신 안에서 특별히 칼빈이 통일한 스위스종교개혁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레이스에 의하면 스위스 종교개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개혁을 철저하게 강조한 것이 “개혁주의(Reformed)”라고 명명된 근본적인 이유이다.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일반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개혁주의 교회이다.

이러한 명칭이 16세기에는 일반적으로 프로테스탄트와 복음주의 등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다가 이 명칭은 특별히 스위스의 종교개혁에만 적용되었다. 왜냐하면 스위스의 개혁자들은 성서의 원리를 교회생활에 적용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했기 때문이다.¹⁹⁾

이렇게 본다면 개혁주의는 믿음과 신앙을 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맞추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확고한 답을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음도 알아야 한다. 개혁주의라는 것이 쉽게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개혁을 하고 있는 유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사실 개혁(reform)이란 말은 원래의 원형(form)으로 다시 귀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개혁주의의 원래 의미는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고 반성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뜻하신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의 방향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신앙의 모습이나 전통을 만들지라도 그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늘 순간에 머물렀기에 개혁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올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부패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왜곡된 방향성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바른 방향에서 벗어나게 하기에 충분하다. 참된 종교개혁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²⁰⁾

사실 당시 개혁주의라 정의해야 할 종교개혁의 양상은 너무나 다양하고 넓게 진행되어 나타났으며, 그 결과가 다양하여 개혁주의를 쉽게 정의할 수 없다.²¹⁾ 또한 개혁주의는 그 말이 의미하듯이 개혁을 말하는 것이다. 새로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개혁주의는 그 동안 역사에 쌓여 왔던 전통을 공범위하게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기에 더더욱 쉽게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²²⁾ 더 나아가 지금까지도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형

19) John H. Leit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 역(서울: 반석문화사, 1992), p. 45.

20)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p. 10.

21) Ibid.

22) 개혁주의는 개혁이전의 신앙 유산을 인정하여, 그것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려고 한다. 사도신경, 니케아 신조, 칼케돈 신조 등과 의견을 같이 할 뿐 아니라 1520년 루터의 저서에 포함된 기본원리들 또한 공유하기 때문이다. 이 기본원리는 ① 성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의 궁극적 권위, ② 믿음을 통한

편이라면 아직도 완전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 개혁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개혁주의는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단 개혁주의가 있다면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과 믿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에 대한 정의만이 있을 뿐이다. 이것에 대해 김영규 교수가 잘 말해주고 있다.

결국 참된 종교개혁 정신이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파괴하는 우리 안에 있는 알미니안들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 환원주의를 비판하고 자신의 시대를 진보적으로 미화하는 그런 현대적 낙관주의를 택하는 자들이 대개 당 시대를 파괴하는 수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런 낙관주의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등뒤로 돌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심감을 그 뿌리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우리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히 13:21).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내용이며 기도의 내용으로서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풀어지는 신령한 제사의 대요이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 시대에게 주시는 은혜일 뿐 아니라 모든 이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표지이다.²³⁾

결국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일 뿐 아니라 참된 말씀을 향하여 항상 바로 서고자 노력하는 신학전통이라 할 수 있다.

칼빈의 개혁정신은 모든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교리로 돌아가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²⁴⁾ 단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뿐만

은혜로 말미암는 칭의, ③ 모든 신자의 제사장 됨, ④ 공동생활의 신성함, ⑤ 기독교적 신앙과 관행에서 모든 마술적 요소를 철저히 배격함 등이다. (John H. Leith, op. cit., pp. 25-26.)

23) 김영규, op. cit., p. 25.

24) 존 칼빈, 「존 칼빈의 신학논문」 中 「교회개혁의 필요에 대하여」 김진수 외 공역(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1), p. 34. ‘하나님께서 루터 및 구원의 길을 발견하기 위하여 횃불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또한 그 같은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초를 놓았으며 또한 건축한 그 밖의 사람들을 세우셨을 때에 우리들은 “우리들의 종교의 진리와 순수하며 합법적인 하나님 예배와 인간의 구원과를 포함하고 있는 교리의 주요부분이 거의 다 파괴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칼빈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위하여 교회를 개혁해야 하며, 교회의 기본 교

아니라 모든 교부들과 전통들을 신중히 살펴 본 후 참된 성경의 해석으로 돌아간 것이었다.²⁵⁾ 칼빈과 동시대에 활동했던 재세레과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였으나, 그들은 잘못된 성경의 해석으로 말미암아 성경 자체를 오해하였고, 그로 인해 신,구약의 통일성을 무너뜨리고, 이원론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였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개혁주의라고 말할 때에는 단순히 성경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바로, 그리고 가장 탁월하게 해석하였던 우리의 선배들의 신학을 면밀히 살피는 것이고, 그들의 신조를 통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다.

2. 개혁주의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만남을 통해 그를 경외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특권을 누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통해 그의 택자들에게 믿음과 신앙을 지속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정신을 그 근원으로 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며 성경의 원리대로 신앙과 믿음을 영위하기 위하여 항상 개혁하는 신앙전통이다. 그러므로 ‘개혁주의 예배’는 성경에서 명령하는 원리를 따라, 즉 하나님의 명을 따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져야 한다.²⁶⁾ 신학과 신앙이 표현되는 것이 예배이기에 개혁주의 예배는 성경적이

리가 무엇인지 논하고 있다.

25) 존 칼빈, 「기독교 강요 초판」, 양낙홍 역(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98), p. 55. ‘그들은(로마 교회) 우리를 교부들의 대적이요 교부들을 멸시하는 자라고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부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만일 그것이 우리의 현재 목적이라면, 나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대부분이 교부들의 사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6) 김영재, 「교회와 예배」(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0), pp. 44-45. “기독교의 예배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며,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나오시며 창조와 섭리와 우리의 구원과 성화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 삼위 하나님께 기독교적인 의식으로 예배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서양의 기독교와 함께 전수 받은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며 바른 신학 전통을 고수한다. 그러나 바른 신학과 신앙을 표현하지 못하는 세계관이 담긴 예배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개혁주의 예배는 개혁하는 예배로 모든 예배가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하고 인간을 영화롭게 하는 요소를 제거해 간다. 또한 온 회중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 그를 경외하며 경배하고,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을 개혁하는 예배라는 최상의 목표를 가지고 틀린 것은 지양하고, 바른 것은 지향하여 성경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애쓰는 것을 개혁주의 예배라 말할 수 있다.

3. 예배는 시대성을 가지는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 시대, 즉 초대교회 당시의 예배는 명확한 예배의식이나 틀을 가지고 예배하지 않았다.²⁷⁾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떡을 떼고, 기쁜 마음으로 교제를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행 2:42-47; 4:32)으로 보아 당시의 예배는 만들어진 일정한 예배의식에 따라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자율에 따른 무형식적인 예배였음을 보여주는 예라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예배가 그저 표류하는 배와 같이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당시의 예배 또한 그 목적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행 2:42, 47) 성도들의 교제를 이끌며(행 2:44, 45),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행 2:45, 47)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와 예배는 교회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예배가 더욱 구체화되고 제도화되었다. 성경에서는 볼 수 없지만, 발견된 문서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2세기 초부터 예배의식을 가지고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세례에 대한 가르침과 함께 예배에 대한 수칙을 가르치기도 하며, 예배순서에 대한 기록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회와 예배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였음을 이해하게 된다.²⁸⁾ 이후의 교회와 예배의 발전에 대

27) 김영재, *op. cit.*, p. 66.

28) *Ibid.*, pp. 73-75.

해 김영재 교수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2세기로 접어들면서 감독교회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교회의 제도가 확립되면서 교회는 예배를 위한 예전도 갖게 되었다. 중세에 이르면서 교회의 제도는 교계주의 교회로 발전한 한편, 예배의 예전도 지나치도록 복잡하게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제도를 개혁함과 동시에 예배 형식도 개혁하였다.²⁹⁾

혹자는 교회의 예배가 지나치게 형식적인 이유를 근거로 종교개혁자들이 그러했듯이 초대교회의 예배로 회복하는 것, 즉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진 예배의 형태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경적 예배라 주장할 수도 있다. 지금 드러지고 있는 여러 예배들이 마치 중세의 복잡한 예배들과 같이 형식적인 면으로 치우치고 있어, 성경에서 보여준 예배형식과는 너무나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약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는 “생성되고 성장해 가며 제도화되어 가는 교회일 뿐”³⁰⁾이었기 때문에 후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구체적인 예배형태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이다. 더 나아가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하려 했던 예배 또한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예배의 형태 만으로의 복귀가 아니라는 것을 주지해야 한다. 루터나 츠빙글리나 부처나 칼빈의 예배 개혁을 보면 그들 또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가진 성경적 예배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의식서를 가진 형식적인 예배로 모든 회중이 하나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³¹⁾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의 근간이라 불리우는 칼빈 또한 예배에 대한 일정한 개혁주의적 예배 신학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 예배에 대한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³²⁾ 그러므로 예배는 형태에 있어서 발전하거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9) Ibid., p. 34.

30) Ibid., p. 66.

31) Ibid., pp. 86-95

32) John H. Leith, op. cit., p. 210.

이는 마치 개척 초기 교회에서 수만 명이 참석하는 교회의 예전의 형식을 따라 예배할 수는 없지만,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그와 비슷한 성격의 예배 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배에 대한 이해나 사상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이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경적인 원리나 근거는 언제나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것으로 예배자에게 주어진 명제와도 같기 때문이다. 단지 예배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 기본 원리에 충실한 가운데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배의 형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 보여준 예배의 변화는 바로 그러한 기본적인 입장 하에서 변화되고 발전해 왔음을 보여준다. 때론 그 발전과 변화가 과격하여 성경과 기본적인 양심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코 하나님을 위하지 못하며 예배자를 위하지도 못하는 예배가 있었기에,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을 고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개혁주의 예배관은 그것이 성경에 충실한 한 시대를 거처가도 변할 수 없는 기본적인 원리로, 그 예배관을 실행하는 예배의 틀은 다양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배관을 담는 예배라는 그릇이 항상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배는 언제나 그렇듯이 신앙과 신학의 표현이기에 어떤 예배의 형태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별을 위해 예배자는 예배관을 담는 예배의 틀을 사용하기 위해 항상 주의해야 한다.

Ⅲ. 개혁주의 입장에서의 열린 예배 비판

A. 21세기 상황 이해

1. 변화에 대한 요구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제의 지식이 오늘날에는 쓸모없이 되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진리로 여겨지고 귀한 전통으로 여겨지던 것은 더 이상 오늘도 여전히 진리로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카엘 게르버(M. Gerber)는 말하기를 “오늘날 인류는 지난 20년동안 겪었던 변화들 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하며 오늘날의 변화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한국의 변화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은 정보화, 특히 인터넷부문에 있어서 세계의 선두에서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데 이로인해 자연 과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등 삶의 전 영역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컴퓨터 디지털 혁명은 사이버 세계의 가상현실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지성의 시대는 가고 감성의 시대가 춤을 추고 있고, 영성이 흔들리고 있다.

정신세계의 문제도 적지 않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³³⁾으로

33)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pp. 13-24.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과 포스트모더니티(postmodernity), 전자가 주로 사상적 경향을 지시하는 말이라면, 후자는 그사조가 지배하는 시대를 말한다. 처음에는 주로 건축과 문학 등 예술 분야와 철학에서 논의되던 포스트모더니즘이 어느새 오늘날 문화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지시어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시11:3)폐허가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비이스는 이 시대를 시편기자와 같은 안목으로 바라보며 「현대 사상과 문화의 이해」의 머리말에 인용했다. 이는 우리 시대는 기존 문화의 토대가 무너진 시대라는 인식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비이스는 물론이고 기독교적 논의 가운데 포스트모더니즘을 바벨탑 사건(창 11:1-9)에 비교하는 것을 흔히

인한 거대한 다원주의의 물결이다. 점점 다양성은 극대화되면서 절대성은 사라지고 있다. 진리가 설 땅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있다. 그렇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계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진리에 호소하거나 양심에 호소하는 전통적인 복음전도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이 문화와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2. 한국교회가 겪는 변화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은 한국 교회에 그대로 닥치고 있다. 교회도 역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쉽게 긍정적인 답을 하기 어렵다. 세상의 변화의 바람으로 교회는 성장이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대항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특별히 청년과 청소년층에서 심각한 감소추세³⁴⁾를 보이고 있는 것은 한국 교회를 더욱 긴장시키고 있고 한국 교회의 미래에 불투명한 전망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 교회는 출석 교인을 확보하고 청년과 청소년층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여러 가지로 활발한데 대표적인 것이 새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비유가 가능할 수 있는 근거 역시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서 맞을 수 있다. ...포스트모던 논의의 핵심은 근대적 인식론과 존재론 그리고 윤리 토대의 상실로부터 기인하는 여러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진리와 도덕의 문제에서 공통적 토대 또는 공통적 창조물의 존재 또는 그에 대한 접근 가능성이 본질적으로 부정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이로 인해 야기되는 삶의 토대가 없어진 시대라고 할 수 있다.

34) 김만형, 「SS 혁신보고서」(서울: 규장문화사, 1998), p. 137. 한국 교회의 숫자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를 찾기는 힘들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에, 미국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갤럽 보고에 따르면 미국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38%에 해당하는 인구들이 5년 전 보다 교회에 가는 횟수가 줄었다. ... 1991년부터 1994년까지 5천 개의 새로운 교회가 미국에서 개척되었는데, 그 때, 약 10억달러를 썼다. 그러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1992년 미국 인구의 40%에서 1994년에는 35%로 떨어졌다.

이성희 목사는 그의 책 「미래목회 대예언」의 서문에서 “한국교회의 전통적인 목회 패러다임은 한국교회의 경험에서 나온 한국적 목회의 소산이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동과 함께 전통적 목회 패러다임은 그 적응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목회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최근 들어 목회자들은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목회 패러다임의 변혁을 강요받게 된 것이다. 흔히 한국교회의 목회는 새벽 기도회, 심방, 설교 등에서 그 특징을 드러내었으나 이러한 목회 패러다임은 제3의 천년에서는 그 적응력을 상실한다. ... 35)

그 가운데 중요한 문제가 예배에 대한 것이다. 보통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그 개혁의 첫 번째 대상이 예배인 경우가 많은데 획일화되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정형화된 예배의 형태³⁶⁾에서 자연스럽게

35) 이성희, 「미래목회 대 예언」(서울: 규장문화사, 1998), pp. 14-15. 이성희 목사가 주장하는 목회패러다임의 변혁 이유는 다음과 같다.

- (1)미래 현상인 가속적 사회 변동에 교회가 적응해야 한다.
- (2)한국교회의 성장이 이미 둔화되어 기존 패러다임의 변혁을 요구받는다.
- (3)미래 사회는 유토피아의 반대개념인 디스토피아(dystopia)로 접근해갈 것인데, 바로 여기에 교회의 사명과 존재 이유가 있다.
- (4)세계화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성 속에서의 통일성(unity in diversity)을 추구해야 한다.
- (5)신세대의 문화와 사고구조는 전통문화나 기성세대의 사고구조와는 다르다.
- (6)컴퓨터 등의 발달로 기술개발과 정보교환 능력이 교회에도 요청된다.
- (7)임시성과 대역개념의 발달로 교회의 소유개념보다 대역개념이 발달한다.
- (8)과학의 발달로 생명 보호라는 심각한 과제가 교회에 주어질 것이다.
- (9)이동성의 발달로 기존의 목회 패러다임이 무력화될 것이다.
- (10)교회 구조가 성직 패러다임에서 평신도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 (11)여성 성직자가 증가되고 여성의 기능이 증대될 것이다.
- (12)정보화에 대한 반작용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영성이 발달한다.
- (13)교회의 관심이 교회 자체의 성장보다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높여 나가는 쪽으로 이동한다.
- (14)교회 마케팅론이 발달한다.
- (15)민족 통일 이후 세계 중심국가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교회의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역동적이고 재미있고 변화무쌍하며 감성적인 예배로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형태의 대표적인 예가 지금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큰 유행처럼 되버린 ‘열린 예배’³⁷⁾, 혹은 감정의 극대화를 통해 회심을 일으키려는 ‘경배와 찬양’³⁸⁾, 현대의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메시지 전달을 극대화하려는 ‘현대 문화예배’³⁹⁾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예배의 변형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기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과 무게가 두어지고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36)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종로서적, 1997), 머리말 “장엄한 의식만을 계속하는 미사의 현장에서 말씀을 그리워하던 무리들이 개신교로 옮기는 사례들이 적지 아니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의미 깊은 예배의 예전이 없이 너무나 많은 설교 속에서 시달림을 당하던 무리들이 구교로 찾아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거기에서 정중한 예전과 말씀 선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37) Paul Braoudakis 편집, 「윌로우크릭 지도자 핸드북」 (서울: 두란노, 1997), 머리말 중에서 빌 하이벨스는 우리나라에 열린예배로 소개된 예배의 형태가 시작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우리의 접근 방법은 비타협적인 성경적 메시지를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행하는 주된 방법은 주말에 열리는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에서 현대적 음악과 드라마, 그리고 적절한 구어체 메시지를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듯한 접근방법이다.” 이 예배는 90년도 후반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들에서 시도되고 있다.

38)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한국 교회를 휩쓸었던 ‘경배와 찬양’(All nation’s Praise and Worship and Worship Ministry)은 이러한 감성중심의 집회를 극대화시킨 모습이었다. 음악이 갖는 감성적 작용은 특히 청소년과 청년층에게 효과적으로 감정을 자극하고 반응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하다. 지루하고 딱딱한 전통적인 예배의 형태에서 대부분 찬양과 기도로 이루어지는 찬양예배의 형태는 역동적인 변화와 다양한 감정을 체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예배에서는 말씀의 선포는 전체적인 메시지가운데 일부로서 제한적으로 취급되어지고 있으며 좀 더 체험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필요되고 있다.

39) 현대 문명의 발전과 함께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으로 그리고 미디어의 발달로 교회에서도 고도의 미디어 활용이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나 대형교회에서 청중들의 예배를 돕고 설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프로젝터, 대형 스크린, 방송용 카메라와 컴퓨터를 이용한다.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컴퓨터 동영상을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오히려 점차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한 나머지 말씀, 곧 설교의 영향력과 비중을 점차 약화시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B. 예배 갱신으로서의 열린 예배

1. 열린 예배의 등장 배경

1) ‘열린 예배’의 명칭의 유래

우리나라에서 ‘열린 예배’란 명칭은 모방송사의 ‘열린 음악회’라는 명칭에서 유래되었다. 종전의 음악회는 주로 클래식음악이나 가곡같은 고전적이거나 전통적인 고상한 음악이 연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클래식음악의 대중성에 한계를 보이자 대중성이 강한 대중음악과의 퓨전형태인 음악회가 필요하게 되었고, ‘열린 음악회’라는 명칭으로 90년대초반부터 대단한 인기를 받아왔다. 열린 예배라는 명칭도 이러한 열린 음악회의 개념에서 생겨났는데 미국의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들여온 Seeker’s Service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을 고민한 끝에 당시 열린 음악회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열린 예배라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열린 예배라는 명칭이 영어에는 없다. 원래의 Seeker’s Service(구도자 예배)라는 명칭은 일반적으로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한 특별한 집회적 성격을 갖는 것이다.

2) 현대적 감각에 맞춘 예배

오늘날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배라는 이슈가 많이 거론되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그 중에 중심적인 원인이 있다면 전통적인 예배는 딱딱하고 경직된 예배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새로운 예배형태가 한국교회에서 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열린 예배(Open Worship)라는 것이다.

김만형과 최재하는 열린 예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열린 예배란 무엇인가? ‘열리다’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첫째, 닫힌 것이나 덮인 것이 트다. 둘째, 무슨 일이 시작되다. 셋째, 어떤 관계가 맺어지다. 넷

째, 사람들의 머리가 깨고 문화가 발전되다”이다. 이것이 열린 예배가 열린 예배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닫혀 있는 우리의 마음이 트여야 하고, 경배와 찬양이 시작되어야 하며, 그 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야 하고, 우리의 머리가 깨어나야 한다. 진정한 예배는 그렇게 드러져야 한다.⁴⁰⁾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예배의 방식을 거부하고 예배의 형태를 과감히 부수고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띠는 예배이다.

따라서 열린 예배는 현대 문명에 맞게 예배도 시대적 감각 내지 예배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 열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취지이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의 특징을 살리면서 ‘예배를 갱신해보자, 예배를 좀 변화시켜보자, 예배의 본래의 모습을 살펴보자’라고 말하면서 나타난 운동이 바로 예배갱신 운동으로서의 열린 예배이다. 그러므로 열린 예배는 예배의 특징을 살리면서 동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장으로서의 예배를 강조한다.

이근수는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고 예배를 통하여 생동감 넘치는 삶의 장으로 끌어올린다는 차원에서 예배를 강조하며, 축제적인 요소를 회복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세적인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에서 열린 예배를 드리고 있다⁴¹⁾고 하였다.

3) 열린 예배의 성경적 배경

김만형목사는 열린 예배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이사야 66장 19절에서 찾는 데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소개할 것을 언급하고 있듯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시편 96장 10절과 57장 9절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신명기 26장 10절과 11절에

40) 김만형·최재하,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예배”, 「목회와 신학」 106(서울: 두란노서원, 1998년 4월호)

41) 이근수,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월간목회」(서울: 월간목회사 1998년 4월호)

이방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예배할 것을 말하는 것처럼 불신자들과 함께 예배하라는 것이다. 또한 로마서 15:9-11에서 하나님이 불신자들을 잠재적인 예배자로 인식하고 계신 면들과 사도행전 10:34-35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도 그러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⁴²⁾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예배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의 부흥에도 문제가 생긴다⁴³⁾는 것이다.

에드 답슨은 고전9:19-23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을 얻고자 함’(20), ‘이방인을 얻고자 함’(21), ‘약한 자를 얻고자 하는’(22) 바울의 심령과 태도를 말하면서 모쪼록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 이 예배의 성경적 배경이었다.⁴⁴⁾ 답슨의 논리는 바울은 복음 확산을 위해 과감하게 자신의 종교적 전통과 방법을 포기하고 구원 받아야 할 대상자들의 문화를 고려하여 복음 전파의 새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존 교회가 갖는 독특한 언어, 용어, 행동, 분위기, 음악 등은 구도자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장애가 되는 요소로 보고 이것들을 그들의 기호에 맞추는데 노력했고 이것을 성경적 근거로 삼은 것이다.

4) 열린 예배의 특징

열린 예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사회학적 조사를 기초로 한다.⁴⁵⁾ 즉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분명한 이해와 그들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예배의 많은 기능들을 첨가하는 것이다.⁴⁶⁾

둘째, 기획하는 마인드로 예배를 준비하여야 한다. 즉 예배가 보다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기획되어야 한다.⁴⁷⁾

42) 김만형 “열린 예배로의 갱신 : 그 의의와 적용” 「목회계획 갱신 컨설팅이션」(서울: 한국강해학교 전문목회연구원, 1997), p. 355.

43) 김만형 · 최재하, op. cit., pp. 108-109.

44) 이정현, op. cit., pp. 482-483.

45) 김만형 · 최재하, op. cit., p. 109.

46) 김만형, op. cit., p. 356.

셋째, 예배 중에 환희와 기쁨, 축하의 요소가 있다. 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장식과 밝고 경쾌한 찬양을 하는 것이다.

넷째, 음악 선택을 신중히 하는 것이다. 현대음악을 많이 사용하면서 영적으로 고갈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심정을 그대로 노래하는 것이 특징이다.⁴⁸⁾

다섯 번째, 열린 예배는 예배의 진행 하는데 있어서 순서와 순서사이 중간중간에 지루하지 않게 하는 요소들을 많이 가입한다.⁴⁹⁾

여섯 번째, 말씀을 나누는 설교시간에 상당한 비중을 두되 이 말씀을 접근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드라마와 비디오인데 필요에 따라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접근하고 있는 데 장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가깝게 접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⁵⁰⁾

일곱 번째, 복음적인 메시지가 강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전체적인 분위기가 따뜻하다는 것이다. 장소를 온화하고 따뜻하게 하고, 조명, 음향, 좌석, 실내 온도 등에 신경을 많이 쓴다.⁵¹⁾

아홉 번째, 다양한 변화를 통해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비디오를 사용하지만 어떤 때는 인터뷰 스타일, 어떤 때는 드라마 형식, 어떤 때는 편집을 이용하면서 변화를 주며 기대감을 갖도록 한다.

열 번째,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평가하고 향상시키는 것에 전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모든 관계된 사람들이 서로서로 평가해 주는 작업을 말한다.

5) 한국적 상황에서의 열린 예배

이정현 교수는 열린 예배라고 했을 때는 미국 교회에서 시도된 구도자

47) 김만형 · 최재하, op. cit., p. 109.

48) 김만형, op. cit., p. 357.

49) Ibid.

50) 김만형 · 최재하, op. cit., p. 110.

51) 김만형, op. cit., p. 358.

예배와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열린 예배는 미국의 새로운 예배 스타일과 그 내용뿐만 아니라 목적 자체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한국 교회에서 구도자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 주장은 타당하다. 실제로 열린 예배가 활성화 되어 있는 교회에서도 불신자나 초신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기존 신자들을(특히 청년과 청소년층)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열린 예배는 세상 문화와 기독교 문화와의 괴리감으로 인하여 교회를 이탈하는 젊은 세대들을 계속 붙들어 주고, 낙심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예배 기회를 주고, 아울러 불신자 전도 목적으로 개설된 것이다.⁵²⁾

미국의 구도자 예배가 열린 예배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했다가 용어에 대한 신학적 비판, 교회의 상황, 미국과 다른 한국의 특성 때문에 개 교회와 인근의 상황에 맞추어 적당히 혼합된 새로운 형태의 예배를 구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불신자들과 젊은층의 신자들에게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한 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창출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하다.⁵³⁾

C. 열린 예배의 문제점

1. 인간 중심의 예배

열린 예배란 기독교 역사 2천년 동안에 일찍이 없었던, 지금까지의 전통적 예배의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예배로서 예배의 형태를 이 시대의 세속적 문화와 표현방법으로 바꾼 세속화된 교회의 타락한 예배의 형태를 말한다. 따라서 열린 예배란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완전히 뜯어고친 새로운 이질적 형태의 예배 형식을 말한다.

52) 이정현, *op. cit.*, pp. 488-489.

53) *Ibid.*

열린 예배는 자신들의 즐거움을 위한 축제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아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관심하기 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자인 인간에게 관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생명인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성경과 예배 모범에 위배되는 소위 열린 예배의 위험성에 대해서 주의하여야 한다.

열린 예배는 빌 하이벨스가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의 취지에서 밝히고 있듯이 불신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론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도우려 한다는 주장이 타당성 있게 들릴 수 있지만 예배드리는 자를 위해 예배 받으시는 분은 덜 중요하게 여겨지며 구도자들에게 한편의 기획된 연출물을 시연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열린 예배에서는 예배를 구성하는 각각의 요소는 전체적인 조화, 그리고 중심 메시지를 중심으로 프로그램된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열린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강론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요소 즉, 드라마, 영상, 사진, 심지어는 대중음악 등등 사용 가능한 모든 요소들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를 통해 설교를 대신할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대부분 감성을 자극하는 것인데 실제로 교회에서 이러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사역자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어필할 수 있는 메시지 도구를 찾을 것인가에 있다고 한다.⁵⁴⁾

이러한 변화는 좀 더 한국교회 내에서 대세로서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특히 교회성장을 중요한 목회의 패러다임으로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서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다고 하면 마치 어떤 신학적인 입장도, 진리를 보수 할 수 있는 어떤 방패도 버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버릴 각오가 되어있는 듯 보인다.

54)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저서 '목사와 설교'에서 예배가 변형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기독교의 부패한 모습을 증거하며, 이러한 외형적인 모습의 치중은 말씀이 곧 설교가 힘을 잃었기 때문임을 주장한다. 말씀에 기준이 된다는 것은 예배의 중심점이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예배 형식의 세속화

열린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열린 예배는 예수님을 친근하게 만나도록 하고, 교회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교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배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열린 예배는 불신자들을 전도하기 위한 예배, 새 신자들을 위한 예배라고 한다. 특별히 젊은층과 청소년들을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열린 예배의 형식을 통해 그들의 문화를 사용하여 복음을 제시한다. 그러나 불신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려는 시도가 지나칠 경우 복음은 사라지고 문화만 남는 현상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시키고 말 것이다.

열린 예배를 위해서는 일정한 형식이나 틀보다는 늘 새로운 형식과 틀이 필요하다. 예배기획을 통해 항상 새로운 시도나 접근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시도나 접근이 얼마나 가능한 것이 되겠는가? 항상 새로운 형식과 접근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더욱이 새로운 시도나 형식에 익숙해 있는 예배자들이 얼마만큼이나 이러한 열린 예배의 형식에 만족할 수 있겠는가? 곧 머지않아 열린 예배의 형식도 과거의 전통적 예배의식이 되어버리게 될 것이다.

3. 외형적 구조의 변경

열린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예배당의 외형적 구조도 전면 개조되어야 한다. 열린 예배가 가능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교회관과 예배 의식에 대한 개념, 의식구조, 사교방식의 개조와 변화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외형적 구조의 변경도 강조한다. 강대산, 강단, 의자 등을 모두 개조하고 대형 스크린, 조명장치, 음향장비등을 설치하고 강대상 뒷면 벽을 그림이나 화단으로 장식한다.

강대상은 작고 이동이 편리하여야 하며 강단은 낮고 넓게 무대처럼 개조한다. 강단은 필요에 따라 각종 연주회, 춤, 연극 등이 가능한 무대로 전환

하기 위함이다.

물론, 강대상과 강단이 크고 화려하며 위엄을 갖춘다고 하여 예배가 잘 되고 안 되고 하는 차이는 없다. 그러나 강대상과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처소로 그 가치와 격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에게 자리잡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구약시대의 성물들이나 성구들이 구별되고 성별되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에 사용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강대상과 강단에 대해 구별되고 성별되는 의미를 유의해야 한다.⁵⁵⁾

4. 프로그램과 행사

열린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스태프들은 항상 바쁘고 피곤하다. 육체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행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맛보기보다는 커다란 공허함과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5. 열린 예배의 형태들

에드 답슨(Ed Dobson, 미국 미시간주 Grand Rapids 소재 갈보리교회 목사)은 그의 책 「Seeker Sensitive Service」의 제2부 “열린 예배는 어떤 형식의 예배가 필요한가?”에서 형식에 매이지 말 것, 현대적일 것, 강요하지 말 것, 편안하게 해줄 것 등을 주장하였다.

다음은 그의 주장이다.

55) 조영엽, 「왜 열린예배는 잘못되었는가?」(서울: 도서출판 미스바, 2001), pp. 23-25.

1)형식에 매이지 말 것(informal) - 목사, 안내하는 사람, 성가대 모두 청바지나 또는 가벼운 옷들을 입는다.

2)현대적일 것(contemporary) - 기타, 전자 기타, 드럼, 심벌즈, 키보드... 그리고 크리스찬 록음악(Christian Rock Music)과 세상의 록음악을 다 연주한다.

3)강요하지 말 것(no pressure) - 공개적으로 초청하거나 나오도록 하여 부담을 주지 않는다.

4)외형적 호감을 줄 것(visually appealing) - 강대상 주변을 재단장하여 교회 강단처럼 보이지 않게 한다. 전형적인 강대상에서 전형적인 설교를 하는 사람은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 수 없다.

먼저 Dobson은 열린 예배는 어떠한 형식에도 매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신들에게 가장 편안한 형식, 옷차림도 다 허락된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어떤 예식에 참여할 때는 그 격에 맞도록 형식을 갖추는 것인데 열린 예배는 이러한 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끔 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다.

전자 기타, 드럼, 심벌즈, 키보드 같은 악기들은 악기의 음악 성질상 고전 음악이나 가곡과 같은 곡을 연주하기에 적절치 않다. 찬송가를 연주하기에도 역시 적절치 않다. 이러한 리듬악기들은 인간의 육체의 흥분과 쾌락을 위한 악기들로서 우리의 정서를 위하여 유익하지 않다.

열린 예배에서는 초청된 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아야 하며 죄를 책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외치신 말씀은 조금의 주저함과 망설임도 없이 “회개하라”는 것이었다. 죄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지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죄에 대하여 침묵하고 회개에 대해서 강한 말씀이 사라지면 결국, 세상을 향해 무엇으로 교회가 설 수 있는가? 회개하지 않는 교인의 증가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만이 교회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이다. 사람들의 의식구조, 세계관, 인생관, 우주관이 통째로 바뀌어지는 이 때에 과연 교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세속 주의를 도입하거나 모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스 기니스⁵⁶⁾는 ‘소명’(The Call)의 저자로 더 유명한데 현대문화를 통한 기독교회의 파괴를 경고하고 있다. 「The Gravedigger File」에서 오스 기니스는 현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연장통 빌려오기’를 하고 있는데 연장통에 있는 연장들을 보는 순간 고칠 필요가 없는 부분까지 고치려다가 집안을 엉망으로 망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경고를 새겨 들을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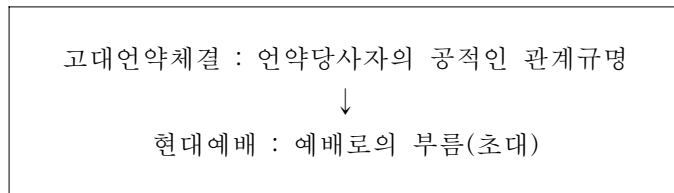
56) 오스 기니스(Os Guinness)는 영국인 기독교 변증가이며 저술가이다. 중국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교육받았으며, 런던대학을 거쳐 옥스퍼드대학에서 사회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프란시스 웨퍼의 문하생으로 라브리에서 웨퍼와 함께 일했다.

IV. 예배갱신으로서의 개혁주의 예배

A. 성경적 예배의 현대적 적용

송제근 교수는 「목회와 신학」 10월호에서 예배의 성경적 근거와 현대적 적용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모세오경을 통하여 예배의 근원적인 기원에 대하여 설명한다.⁵⁷⁾ 시내산언약과 모압언약으로 이어지는 언약체결 과정들은 현대의 여러 가지 예배의 요소로 발전되고 있는데 각각의 예배요소에 대한 교훈과 의미를 잘 살피서 올바른 예배신학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1. 초대 : 예배의 첫 번째 요소 - 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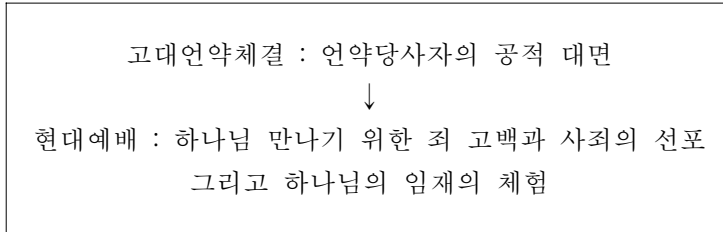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을 때에 인격당사자에 대하여 공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인가를 규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출애굽기 19:3-8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존귀한 자’(segullah)라는 고대의 조약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조약의 공식적인 파트너로 인정할 때의 표현을 사용해 받아들인다. 반면, 이스라엘은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현대적 예배에 있어 이것을 적용한 요소가 바로 고대의 언약체결의 초두에 나온 것과 같은 ‘예배로의 부름(초대)’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공적으로 인정하시는 그 언약적 인정만을 의지하고 하나

57) 송제근, 목회와 신학 11월호, p. 91-93. 송제근교수는 출애굽기 19-24장을 시내산 언약으로, 신명기 4-28장을 모압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갱신하며 하나님나라를 실제적으로 다루는 내용으로 송제근 교수의 학위논문 「시내산언약과 모압언약」(서울: 솔로몬, 1998)에 소개되고 있다.

님 앞으로 나오는 예배자임을 의식하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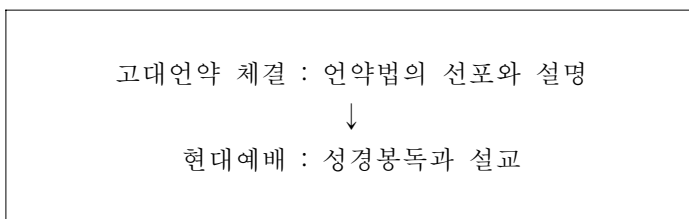
2. 죄 고백 : 예배의 두 번째 요소 - 죄 고백



언약당사자들의 공적인 대면을 위해 이스라엘은 자신의 옷을 빨고 아내와의 성적인 관계를 금하며 삼일 간 그 날을 준비했다. 그리고 일제히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정렬해 섰고(출 19:9-15),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천지를 진동시키면서 강림하셨다.

현대의 예배에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옷을 빼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개인적인 공동체적인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시간 이후에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죄를 선포하고 이런 기록하게 된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이다. 예배시 하나님의 임재는 설교할 때가 아니라 설교하기 전에 경험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죄의 고백으로 겸손하게 된 인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성경 읽기와 설교 : 예배의 세 번째 요소 - 성경 읽기와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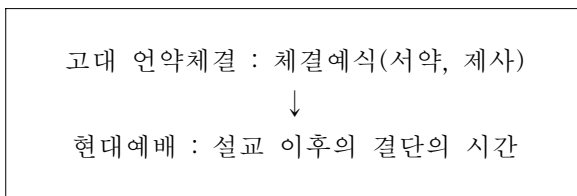


세 번째로 언약 당사자의 공적인 만남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

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언약법을 듣고 순종하는 과정이다. 이것이 고대에는 먼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신 십계명의 선포로 나타난다.(출 20장, 신 5장) 이어서 그것에 대해 백성이 계속 듣는 것을 두려워하므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십계명을 세부적인 상황 속에서 적용한 세부법이다(출 21-23, 신 12-26장).

현대에 있어서 이것은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⁵⁸⁾과 봉독된 말씀에 대한 설교이다. 세부법이 주어진 것과 같이 원리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선포를 해야 할 것이다.

4. 결단 : 예배의 네 번째 요소 - 결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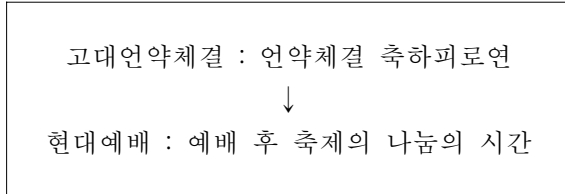
네 번째로 그런 언약법의 선포가 있고 난 뒤에 공적인 체결예식을 행했다. 그 체결의 중요한 요소로 먼저 언약법을 공적으로 기록하고 그것을 언약의 증빙문서, 즉 ‘언약의 책’(출 24:7)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같이 생명을 걸고 언약에 동참함을 나타내는 번제와 화목제를 행하고 피를 뿌리는 서약식을 하였다. 이 생명을 건 서약식에는 이스라엘만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참여하였는데 하나님도 언약의 책임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예배에 있어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간과 되고 있다. 즉 설교자가 언약법을 선포하고 설교하고 난 뒤 그 법을 목숨 걸고 행하겠다고 작정하는 서약식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이든 공적인 차원이든

58) 성경봉독과 관련하여 송제근 교수는 그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설교자가 하는 것과 마치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듯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힌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로 작정, 결심, 서약을 하는 이러한 결단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이다.

5. 축제 : 예배의 다섯 번째 요소 - 축제



다섯 번째로 이제 체결된 언약예식을 축하하는 피로연이 베풀어졌다. 이 피로연은 긴장된 언약체결의 순간은 지나가고 그 체결된 평화의 상태를 누리며 즐기는 축제의 차원이 열리는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만나서 먹고 마시는 즐기는 요소가 거기에 포함된다.

현대의 예배에서 이 축제의 요소가 많이 상실되기도 한다. 이제 결단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과 새롭게 한 언약관계를 즐기는 차원이 열려야 한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현장이 벌어져야 하는 것이다.

B. 예배갱신으로서의 설교의 회복

설교는 세상의 강의와 달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설교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기 때문이다. 예배 드릴 때 하나 하나의 순서가 모두 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인 것이다. 설교 전에 이루어지는 죄의 고백이나 용서의 확인은 구약 백성들이 했던 번제에 해당된다. 그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에 대

하여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순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으러 올라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크게 범죄하였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시도록 진 밖에 회막을 치고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다(출 33장) 그런데 모세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달라고 요구한다. 아마도 모세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불순종으로 완전히 자신감을 잃은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셨다.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어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의 얼굴을 볼 수도 없어서 모세를 대면할 때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써야만 했던 것이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놀라운 주석을 하고 있다.

고린도후서 3장 7-8절에 있는 말씀인데,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사도 바울은 모세의 직분과 자신의 복음의 직분을 비교하고 있다. 모세는 율법의 사역자로서 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의 얼굴의 광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자신은 율법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이며 그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뵈는 것과 같다. 우리가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로 듣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서서 그의 음성을 친히 듣는 것과 같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보고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가장 놀라운 축복이 같은 죄성을 가진 형제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또 우리에게 친숙한 형제중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이라이트요 영광의 얼굴을 뵈는 것이다.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영혼의 갈급함을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부분을 채움 받을 때 우리의 예배는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설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깊은 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말씀이 울려 나올 때 성도들이 예배에서 은혜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의 영혼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없을수록 목회자는 다른 것을 끌고 오려는 유혹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강단의 장식이나 예배당의 규모 혹은 예배당의 스테인글라스나 혹은 심지어는 깜짝 이벤트같은 것으로 교인들에게 만족감을 주려고 한다. 그러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교인들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도이다.

V. 결론

A. 요약

교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활동은 두말할 것 없이 예배이다. 오늘날 한국에는 예배에 대하여 어떤 특성과 차이를 가지고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로 구분하기도 하고 강단의 어떤 장식과 예배의 스타일에 따라 예배의 적합성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다. 예배를 하나의 형태나 스타일의 차원에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 주님은 구체적인 예배의 형태나 스타일, 시간과 장소를 언급하지 않으시고, 가장 근본적인 요소인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 때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며 우리의 예배는 예배하는 자들이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어떠한 형식과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럼 소위 열린 예배가 그러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서 정당한가하는 것인데, 물론 열린 예배를 시도하고자 하였을 때의 어느 정도의 순수한 의도⁵⁹⁾가 있다고 할지라도 열린 예배에는 여러 가지 신학적 난제가 있음을 살펴 보았다.

열린 예배라는 용어의 사용, 원색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보다 메시지만을 담은 우회적인 전도방법, 현란한 전자악기의 사용으로 인한 기존 신자들의 불만과 정서적 문제, 흥미위주의 예배로 흐르기 쉬운 점등이 지적되고 있음을 보았다.

무엇보다도 한편의 준비된 예배가 주어진 시간 속에서 진행되다 보니 말씀의 충분한 강설을 갖기 어려운 점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예배자들을 말씀에서 멀리 떠나게 하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59) 현대 선교학적인 입장에서 열린 예배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겠다는 열정과 특별히 젊은층에 대한 전도와 수용의 측면에서 그들을 교회와 세상의 커다란 문화적 괴리감을 줄일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주장되고 있다.

B. 제언

먼저, 말씀과 성례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말씀’과 ‘성찬’의 2부 구조가 분명했지만 중세 카톨릭 교회는 말씀 없는 성찬 중심의 의식강조로 인하여 예배가 타락하였으므로 이에 종교개혁자들은 예배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당시의 예배의 개혁은 의식 중심의 예배에 반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말씀 중심의 예배를 강조하였다. 이 또한 한편으로 치우친 경향이 없지 않은데 보이는 말씀으로 ‘성찬’의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회복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말씀의 설교자들은 신자들이 설교를 통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삶을 결단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부단한 말씀의 연구와 정진이 필요하다. 오늘날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살아있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지 못하는 설교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환기 시대 속에서 목회패러다임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기 전에 교회는 주님의 재림 하시기 까지 교회의 빛된 사명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증거자로 남아 있어야 한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 분의 아름다움을 이해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더욱 풍성하여질 것이다. “말씀의 빛 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없다.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의 지도를 받지 않는 곳에는 교회가 없다” (칼빈의 요나서 주석 中).

개혁교회가 지향하는 예배신학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나 오순절 계통의 교회나 간판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든다.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성공했다고 하면 무조건 먼저 들여오자는 식이다. 개혁교회는 역사적 개혁주의 전통을 이어받고 그 신학을 존중하며 신앙고백을 존중한다. 그렇다면 그에

정당한 예배의 신학이 있는 것이다. 신자들에게 개혁교회, 개혁주의 전통의 예배신학에 대한 교육을 통해 개혁교회는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가를 전수해야 한다.

현대교회는 열린 예배가 갖는 좋은 의도를 살릴 수 있는 교회문화를 정착할 필요성도 간과할 수 없다. 교회는 젊은층에 대한 관심과 이해에 대해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건전한 교회문화행사가 고려되어야 한다. 열린 예배에서 의도하는 좋은 취지들은 살리되 예배라는 이름이 아닌 교회 문화행사로써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행사도 많은 점검과 연구를 통하여 그 순수성과 영향력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건전한 기독교 문화 형성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본다.

예배 의식은 때와 장소의 부대 상황에 맞게 개량될 수도 있으나 예배의 요소들은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변하는 세상에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조작된 감동, 인위적으로 감정을 흥분시키는 시도 때문에 청중들은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을 교회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감동과 변화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차원의 감동과 변화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배회복운동과 바른 설교 회복 운동이 도리어 변화 무쌍한 전환기 시대의 대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서

- 김만형. 「SS 혁신보고서」.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김영규.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 서울: 도서출판 하나, 1998.
- 김영재. 「교회와 예배」. 수원: 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 2000.
- 나용화.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2000.
- 신국원.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IVP, 1999.
- 이성희. 「미래목회 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이정현. 「개혁주의 예배학」. 서울: 서울성경신학대학원출판부, 2001.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설교 아카데미, 2000.
- 조영엽. 「왜 열린 예배는 잘못되었는가?」. 서울: 도서출판 미스바, 2001

번역서

- Braoudakis, P. 「윌로우크릭 지도자 핸드북」. 김양석역. 서울: 두란노, 1997
- Calvin, J. 「존 칼빈의 신학논문」. 김진수 외 공역.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1
- Calvin, J. 「기독교강요초판」. 양낙홍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사, 1998
- De Jong, James A. 「개혁주의 예배」. 황규일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7.
- Lloyd Jones, D.M. 「목사와 설교」. 서문 강역.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9.
- Fields, D. 「새들백 교회 청소년사역 이야기」. 최종훈역. 서울: 도서출판

디모데, 1999.

Leith, John H.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오창윤역. 서울: 반석문화사, 1992

Webber, Robert E. 「예배학」. 김지찬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88

학위논문

김동기. “개혁주의에서 바라 본 열린 예배 비판 연구” (석사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1.)

김재오. “예배에 본질에 있어서 구도자 예배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천안기독교신학대학원, 2002.)

남호근. “21세기 예배 회복에 대하여” (석사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2.)

박순정. “한국 개혁주의 교회의 바람직한 예배” (석사논문, 합동신학대학원, 1998.)

백천기. “공예배정신에 관한 연구” (박사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3.)

소의수. “한국장로교회의 예배갱신 원리와 실제.” (박사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1986.)

신영철. “한국교회 예배와 그 갱신에 관한 연구” (석사논문, 총신대 신학대학원, 2000.)

정기간행물

김남준. “예배의 본질적 요소의 회복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제 24권, (1998, 4).

- 김만형·최재하, “하늘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는 예배” . 「목회와 신학」 (1998, 4).
- 김영재. “한국교회의 예배와 개혁주의 전통”. 「신학정론」 (1991. 7).
- 김재성. “개혁주의 예배원리와 갱신”. 「신학정론」 . (제32집).
- 송제근. “예배의 성경적 근거와 현대적 적용”. 「목회와 신학」 (2002. 10).
- 이근수. “우리가 열린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 「월간목회」 (1998. 4).